

## 전남 828곳 폐교 ... 당신의 모교가 사라진다

전남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30·40대 학부모들의 타 지역 이주가 겹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에 학교가 사라지면서 주민 이주, 상권 붕괴 등으로 가속화되고, 학생·학부모가 사라지면서 폐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0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별 폐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폐교 수는 서울은 3개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828개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위치한 지자체들과 이외 지역들의 폐교 숫자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 44개 ▲대구 36개 ▲인천 57개 ▲광주 15개 ▲울산 27개 ▲세종 2개 ▲경기 169개 ▲강원 460개 ▲충북 253개 ▲충남 264개 ▲전북 325개 ▲경북 729개 ▲경남 582개 ▲제주 32개교였다.

### 저출산·학령인구 감소에 자녀교육위해 도시로 ... '지역 소멸' 가속화 신설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 ... 전남교육청 "초·중·고 연계 교육 추진"

반면 2023년까지 신설이 예정된 학교 수는 수도권에 치우쳐 있다. 지난해 5월 집계 기준 신설예정 학교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서울 6개, 인천 15개, 경기 56개로 전체 113개교 중 77개(68.1%)로 나타났다. 폐교 증가폭이 컸던 지역들은 신설예정학교 수가 제한적이었다. 전남 2개, 경북 1개, 경남 9개, 강원 1개, 전북 2개교 등이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교육 현장에 큰 문제 중 하나라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인 242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18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은 주민 이탈로 이종

을 겪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로의 전입 인구 급증으로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대비 11만 2508명이나 늘어 2603만8307명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대전, 전북, 경북, 경남 등 상당수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는 전출도 전입보다 많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도 이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여부는 지방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학을 결정하는 등 이탈이 생긴다"며 "학령인구 감소 추

세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학부모·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심화'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원도심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교육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해결 과제로 '학생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장 학교 통폐합 대신 미래학교 육성,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 가칭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코로나 다시 증가세 전남, 김장모임 통해 확산

광주에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감염경로도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기존 감염원은 물론 김장모임, 재래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2면〉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광주에서는 하루 동안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17명(광주 1341~1357번)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했다. 지난 3일 확진판정을 받았던 효정요양병원 입원 80대는 지난 9일 새벽 3시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광주 10번째 사망자다.

광주는 지난 8일 모처럼 한자릿 수(6명)확진자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효정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 17명 중 16명이 효정요양병원 관련으로, 입원 환자 12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2명 등이다. 효정요양병원은 지금까지 누적 115명이 감염돼 광주 단일 집단 감염원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 9일 확진판정을 받은 21명은 효정요양병원 관련 4명, 에버그린실버하우스(요양원) 2명, 정사교회·BTJ열방센터 각 1명, 전북 김장모임 관련 1명, 양동시장 관련 1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해외입국자 3명 등 다양한 감염경로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진 상인 간 접촉이 확인된 양동시장에서는 상인, 접촉자, 방문자 등 13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다행히 13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2명은 검체 분석중이다.

양동시장 상인인 광주 1325번 확진자는 평소 왕래가 잦았던 동료상인(광주 1285번)이 확진판정(지난 6일)을 받아, 지난 9일 보건소를 찾아와 진단 검사를 받았다. 광주 1285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광주 123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방역당국은 한 달여 남은 설 명절을 고려해 시장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에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총 610명으로 늘었다. 나주시 거주자인 전남 604·607번 확진자는 가족으로, 자녀인 광주 133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목포시에 거주중인 전남 605번 확진자는 해외 출국을 위해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성에선 지난 7일 김장모임을 통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누적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폭설·한파에 동파 피해·교통 통제 잇따라

### 광주 수도권계랑기 동파 속출 전남 해역 저수은 경보 발령

광주·전남에서 나흘 연속 지속된 한파로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해역에는 저수은 경보·주의보까지 발령돼 양식장 등에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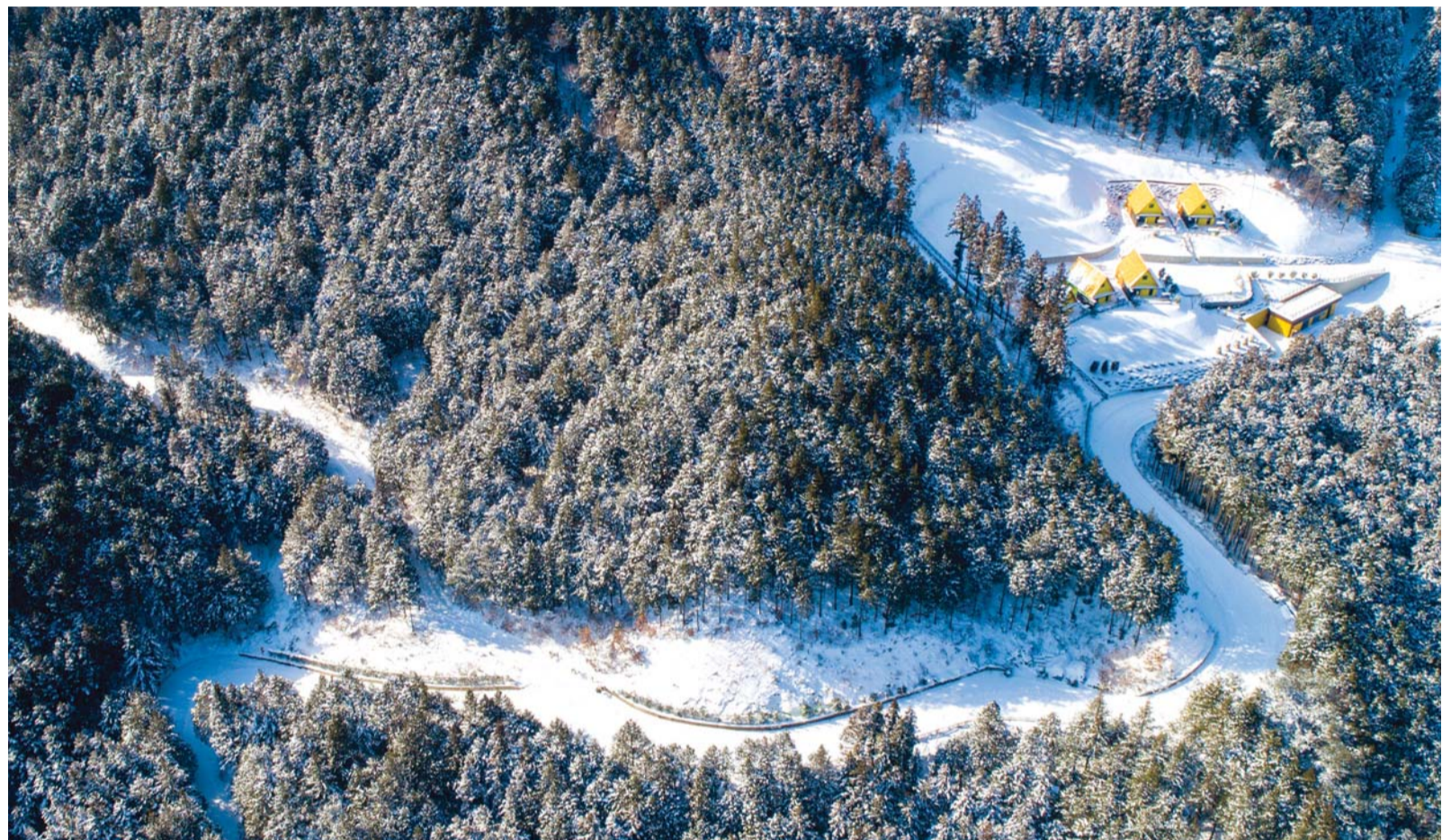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폭설을 동반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파 피해 등이 잇따랐다. 광주는 이날 오전 11시 한파주의보가 해제됐으며, 지난 7일 오후 1시 기준 광산구 용곡동이 최대 적설량 12.0cm를 기록했다. 최저기온은 지난 8일 오전 5시 무등산이 영하 18.9도를 기록했다.

그늘진 곳을 중심으로 쌓인 눈이 덜 녹고 한파가 계속되면서 동파 피해와 교통 통제가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수도권계랑기 동파 42건, 수도관 동파 5건이 접수됐으며 한랭 질환자 15명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전남에서도 계랑기 동파 33건, 수도관 동파 5건 등이 접수되고, 신안군 가거도 30세대의 식수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광주에선 이번 한파기간 국립공원 무등산 입산도 통제됐으며, 무등산 방면 일부 도로 등 8개 노선의 차량 통행도 한때 금지됐다. 광주공항은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 9시 25분까지 결항사태가 빚어졌으며, 현재는 정상 운행중이다.

전남은 구례 성삼재(16km), 함평 신광~해보를 오가는 지방도 10km, 진도 두목재(1.5km), 대령리조트 진입로(1km) 등 급경사 도로가 일시 통제 됐다. 전남 목포·여수·완도 등 전체 항로 55항로 85척 중 31항로 47척의 여객선 운항도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현재 강한 한파와 폭설로 도내 해역에 저수은 경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눈덮인 축령산 ... 북유럽 산골같은 풍경

광주전남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10일 오전 장성 축령산 삼나무 군락에 쌓인 눈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당부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함평만 해역은 저수은 경보가, 목포 달리도부터 해남 송지면 남단을 비롯 고흥 득량만과 여수 가막만은 저수은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저수은 대책 종합상황실 및 현장대응반을 구성한 전남도는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시·군과 함께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저수은 해역의 어가들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어업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온측정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수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해상가두리의 경우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그물 깊이를 3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영양제 등을 투입해 면역력 강화를 도와야 한다.

육상양식장은 보온장비를 가동하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유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오타수가 양식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강한 한파와 폭설로 당분간 저수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양식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가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1 새 설계 - 구례군·신안군·익산시 ▶11~13면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새해 3승 '돌풍' ▶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IOPE RETINOL EXPERT 0.1%

2weeks  
2주간 20%의 주름이 사라진다  
IOPE LAB

## 슈퍼레티놀

###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평균) 2019.09.16~10.17 4주간 20%의 주름이 사라진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